

발화자	발화 내용
정우택	저희들이 이렇게 아리랑 조사하는 거를 보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런,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허송절	한 마디로 민족의 얼을 찾는 분들입니다. 민족의 얼을 찾는 우리는, 우리 그 민족 있잖아요. 우리 중국에도 역시 55 개 민족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민족, 조선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얼을 찾는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택	여기 자체에서도 아리랑을 나름대로
허송절	아리랑하면 조선족이지요.
정우택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계시지 않나요.
허송절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는 아리랑이라 하면은 아 조선족이다. 근데 옛날에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아리랑은 정말 한이다. 일이 바쁠 때 저는 어린 시절에 다 빼놓고 어느 것만 잘 불렀는가 하면은 (노래)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정우택	그걸 후렴도 같이 해주시면...
허송절	뒤에 건 안 하고 여기만 잘 불렀어요. 사실 아리랑은 그렇잖아요. 아리랑은 민족의 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우택	그 아리랑 말고 강원도 아리랑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허송절	노래방 가면 합니다. (웃음)
정우택	그 강원도 아리랑은 노래방에서 배우셨나요?
허송절	예.
정우택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초창기 아리랑은 한국에서 들어온 거죠?
허송절	예 맞아요. 그랬죠.
정우택	거기에서 강원도 아리랑이 아주 인기품목이었나요?
허송절	당연하죠.
정우택	그럼 거기에서 아리랑을 배우신 게 강원도 아리랑하고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어요?

허송절	(노래) 저 먼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는데.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정우택	아 홀로아리랑.
허송절	홀로아리랑. 예.
정우택	생각하셔서 끝까지 부르시면...
허송절	노래방 가면 잘 하는데. (웃음) 곡도 그렇고, 근데 노래방 가면 저희가 홀로아리랑은 필히 부릅니다.
정우택	아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허송절	다른 사람들도 노래방 가면 필히 부릅니다.
정우택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나요? 쓸쓸한?
허송절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족적인 건 고 한국에서는 다 한국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족적인 게 소중한 걸 모릅니다. 때문에 그걸 지킬려고도 안 하고 흘러 지나가도 그것이 소중한 걸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족적인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우리 민족 거다 하면은 저희는 정말 모진 힘을 쓰면서 지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서운한 것이 자기들은 거기서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모르고 흘러 지난다는 게 그것이 좀 제일 아쉽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 민족 거다 하면 저희들은 정말 생활을 바치면서도 그걸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우택	강원도 아리랑도 한번...
허송절	같이 한번 할까요? 나 혼자 하면 잘 못해요. 원래 노래는 같이 해야지.
정우택	강원도, 금강산, 이래 부르는 강원도 아리랑이예요?
허송절	라라랄 라라 (멜로디만)
정우택	강원도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대중가요화 해가지고.
허송절	가사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린 그렇게 했어요 노래를.
정우택	그쪽에서도 그.
허송절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어린 시절부터 그 아리랑입니다.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두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 제일 많이 불렀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불렀구요.

정우택	그 다음에 요새 아리랑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게 홀로아리랑이라고요.
허송절	예 홀로아리랑. 그거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저희가 엄청 많이 부르고 있어요. 민족의 흠여짐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참 저희들한테도 너무 그래가지고. 티비 보면서 뭐 보서 서로 다들 때면은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러냐 진짜 (청취불가) 마음으로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러냐. 조선하고 남북이 다투는 걸 보면서. 심지어 남에서 있잖아요 개그콘서트에서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로서로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느낌을 여기서는 누구나 다 말합니다. 저런 걸 왜 하나, 서로서로.
정우택	개그콘서트가 뭐였지? 연변 사투리?
허송절	요즘에는 이상하게 김정은이 흥내내면서 박수도 이래 치면서 하잖아요. 개그콘서트 아니라 웃찾사에서 하더라.
정우택	전혀 그런 걸 안 보니까. 웃찾사도 봐요 여기서?
허송절	예. 다 보죠. 그래서 막 이렇게 김정은이 막 박수치는 거 이러면서 할 때, 야 왜 저런 거 하나.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좋은 말 많이 하면 좋지만 나쁜 말 하는 건 좋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참 세상 웃기는 노릇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가 돼야지. 좋은 말 해도 다 못 할 세상에 서로서로 좋은 말 하면 통일이 금방 될 겁니다.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서로서로 좋은 말 하면 통일이 금방 될 겁니다. 진짜.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지킬려고 여기에서는 맨 한 가지 떡 하나, 음식 하나, 그 다음에 글 하나 써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거 생각하면 소중한 거 정말 모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틀립니다. 우리가 55 개 민족이 있어, 한쪽까지 하면 56 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을 제외하고 우리는 55 개 민족이라 하거든요? 한쪽은 다민족이기 때문에 떼어놓고. 55 개 민족에서 우리가 우릴 지키다는 것. 제가 시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조라는 장르가 연변에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 출판사에 그 아동문학 총편하고 신문사 기사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조라는 장르가 조심스러워서 못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사로 내보내기도 조심스러웠고 편집하기도 조심스러웠대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택	시조가 언제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허송절	지금까지 자유롭게 않았습디다.

정우택	선생님은 시조를 언제 처음 배우신 겁니까?
허송절	저는 학교 때부터 시조를 좋아했었습니다.
정우택	조선학교에서는 시조를 가르쳤는데?
허송절	시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학교 정도에 있어요(불확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민족적인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하이쿠 가지고, 열일곱자 가지고 미국 교과서까지 가는데 하 참 우리는 싸우다 보니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걸 지키는 걸 못하고. 그것이 한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전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전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시조다 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대요. 제가 시조 좋아하지만 우리 민족적인 거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애쓰는 겁니다 그냥.
정우택	시조하고 아리랑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허송절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시조나 아리랑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시조는 거 옛날에 양반들이 산에 가서 풍월을 읊으면서 하던 거라 해서 북에서는 그걸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본가들이 하던거라 하면 안 된다 한동안 그랬대요. 근데 우리 그 중국에 있잖아요 교과서를 보게되면은 중국 교과서 1 학년부터 시작해서 한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어에 1 학년부터 시작해서 고시. 예를 들어서 시경에 나오는 고시나 (청취불가 리백 0?) 그 분들이 읊던 고시가 뜻을 알든 모르든 읊어라, 해라, 얼마나 잘합니까 중국 사람들. 애들한테 이것을 아냐, 물으면 뜻을 모른답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중국 애들은 고시를 무조건 읊고 쓰는데 얼마나 잘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조가 있는데 그걸 못 하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배울 게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따라해야지, 없니? 우리도 문학 장르에 시조라는 거 있다. 해야지. 고시처럼. 정형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정우택	그러면 그거는 고시처럼 한 게 시조고, 아리랑은 노래...
허송절	그것은 민족의 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구나 아리랑을 아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조선족이다, 이의가 없어요.
정우택	여기 소학교 학생들도 아리랑을 하나요?
허송절	다 알죠. 다 부르고 다 부를 수 있고.
정우택	부르는 노래는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그거.

허송절	예. 다 부릅니다. 다른 아리랑도 부르고 있습니다.
정우택	홀로아리랑은 주로 어른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허송절	예 좋아하고. 예.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그 송, 우리가 갔던,
허송절	기심촌.
진용선	그저께가 기심촌이고. 어제는 수남촌.
허송절	송림촌 수남촌 다 갔다 왔잖아요.
진용선	어제는 용정...
허송절	어제는 00 갔다오셨다면서.
정우택	거기에 다녀보면 점점 조선족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 분들만 계시고.
허송절	그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정암촌에도 가보셨지만요 젊은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우리는 우리 민족적인 걸 많이 지키자. 어,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적인 거 지키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야죠. 지켜야죠 우리가. 아리랑은 특별히 어려서부터 내 나라 민족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르면서 왔던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정우택	아버지 어머님께서도
허송절	예 아리랑 다, 우리 어머님 특별히 예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진용선	시인들 중에 아리랑을 글로 쓰는 시인들이 좀 있나요? 아리랑을 주제로, 소재로, 시 쓰는 시인들.
허송절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시지만 특별히 내가 아리랑 가지고 시를 쓴다는 건
진용선	시에서 저는 좀 못 본 거 같아가지고.
허송절	예 별로 뭐 아리랑에 대해 가지고 써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느껴야 된다는 걸 호소하면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랑을 누구나 정말 피, 살처럼 여기니까.
진용선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가지고 한어로 바꿨잖아요 아리랑을? 티비에서, 방송에서 많이 봤거든요?
허송절	그건 거 개들한테도 정말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아리랑 팀 있잖아요. 아리랑팀. 아리랑 노래 하는 하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조선족 앱니다.
정우택	그 남자.
허송절	예 개는 동문입니다. 제가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동문입니다. 개가 아리랑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런 일이잖아요.
정우택	지금도 잘 합니까?
허송절	예 아리랑 그 그룹이 중국, 북경에서 엄청 이름난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자부감 느낍니다 개 때문에. 내 동문, 우리 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진용선	조선족 말고 한족이 한어로 아리랑 바꿔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허송절	그건 관심 없어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던지 해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안 했거든요.
정우택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죠?
허송절	우리집 조상은 옛날 조선에 길주. 길주에서 왔어요.
진용선	함경북도 길주군.
허송절	예 길주군에서 왔대요. 근데.
정우택	언제쯤 오셨나요?
허송절	잘 모르겠는데, 엄청 길주군에서 부자였대요 그러다가 중국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정우택	그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허송절	아버진, 저희 아버진 고아였어요. 그러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고아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큰아빠가 조선에서 우리 아버지 손을 쥐고 조선에서 중국 건너가지고 왔답니다.
정우택	그게 언제쯤?
허송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정우택	어머니는?
허송절	우리 어머니는 말씀 잘 안 하니까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정우택	두분 다 돌아가셨나요?
허송절	다. 우리 어머니 금년도 4월 23일날 세상 뒀습니다.
정우택	그래서 이 조선족에 아리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나요?
허송절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거는. 제가 우리 총감독님 불렀는데 정말 괜찮은 한국에 분인데.
정우택	뭘 말으신 거예요? 축, 축제?
허송절	원래는 연변에 대학 쪽에 강의차 나왔다가 동지 분들이 요청해서 이분이 축제 했는데 이미 5 회까지 금년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정우택	그럼 계속 1년 내내 여기 사시면서
허송절	여기 살면서 1년 내내 이것만 하는 거 아니고 금년에는 명안(?) 있잖아요. 명안 축제도 합니다.
정우택	왔다갔다 하시면서.
허송절	예 동네에서 있다가 명안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여자분인데.
정우택	조선족 민요나 이런 것 중에서 조선 것인지 한국 것인지 아시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허송절	민요요? 민요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음악하는 분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음악 하는 분들 모셔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음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상해에 음악학원도 연수까지 갔던 친구가, 전문으로 음악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우택	그리고 아까 참 시조에 대해서 우리가 시조를 부흥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한족들이 고시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거에 버금가는 좋은 게 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시조를 강조하시는 건가요?
허송절	어, 시조에 대해서 그전부터 했지만 지금 점점 더 사명감을 느끼고 할 겁니다. 참 근데 참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정말 잘 해요. 애들이 너 이 뜻 아니? 그러면 모른대요. 하지만 시경에 나오는 중국 천년의 역사를 한데 묶은 360 수 자 되는 시경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거기서 가장 좋은 걸 뽑아서 애들 강의하고 하면은, 아 진짜, 진짜, 그럼 우리 민족은 정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나 이러고 있어요. 아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만 있는 건데 지켜야지.
정우택	아이고 참. 슬슬 또 나가봐야 되겠다.

허송절 | 근데 한국 분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한국 분들은. (끝)